

◇ 민중문화의 제도권 진출을 바라보며

'노천'의 전강한 생명력 아쉬워

아주 색다른 경험들

대학에 노천극장이라는 혹은 파업농성장에서 전수해 온 민중의 노래가 제도권 문화의 위상에서 제2의 문화로 자리매김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아주 색다른 경험이다. 그 색다른 경험은 개미열린 연수교육으로서의 "연수"라는 새로운 문화를 시작하여 생애가 부르는 "그날이 오면"에 이르는 단순한 경험자료를 넘어 상설감에 이르게 된다.

지난 4월9일과 10일 양일간 열린 연합노태공연 "다시 쓰는 봄"은 노래가 주는 감동에서 앞서 공연의 규모와 호화스러움, 그리고 노천의 콘서트비박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의 의자의 불편함(7)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만 할 정도로, 공연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우리가 맛보았던 생명력 있는 봄이 없었다.

제도권 진입의 긍정성과 우려

여하튼 지난해 9월 민족예술인 연합회의 발의안을 계기로 제도권 내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는 진보적 문화운동의 변화양상을 그 긍정성의 함의에도 불구하고 또다른 한편의 위험성이 충분히 인식될 필요가 있다.

민중문화의 제도권으로 진입한 국외의 현실이었던 변



민중문화의 대중성과 전문화의 가능성 확인하기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조선의 인식이 공유되었기에 조신스러운 눈으로 지켜보던 민중문화의 제도권 진입은 일단 올레들이 기화된 일련의 전이 공명현상이 성립되어 진행

되고 있다.

한편에서 긍정적 평가가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민중문화의 정착과정과 자유롭지 못한 창작활동으로 제약된 그 활동공간이 제도권 활동이라는 새로운 공간에서 자기명예를 넓혀가고 있는 양상은 예술활동의 전진성과 전문성을 확보해 나간다는 의미에서 환영받지 마

는 것이다.

한편에서 긍정적 평가가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민중문화의 정착과정과 자유롭지 못한 창작활동으로 제약된 그 활동공간이 제도권 활동이라는 새로운 공간에서 자기명예를 넓혀가고 있는 양상은 예술활동의 전진성과 전문성을 확보해 나간다는 의미에서 환영받지 마

말할 일이다.

하지만 공리에서 "관안한 의지의 불협화음"을 예기했듯이, 노천문화의 제도권 진입이 마냥 긍정적이지 못한것은, 문민정부의 일정한 개혁적임이 결국은 직접적인 폭력을 기반하는 지배에서 다룬다. 재현된 지배정체로의 전이이기에 아무 의미도 찾을 수 없는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대중들 사이에는 이러한 미시적 변화양상이 현실적인 현실의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인식에서 기인한다.

결국 지배체제와 기존민중간의 대립형식의 변화가 더욱더 본질적인 자본과 노동의 대립구조나 자본의 축적과정에서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을 인정한다면 부정부패 변화에 민감한 민중의 눈에 민중문화의 제도권 활동이 체제 수용의 한 형태로 비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단정히 예기하던 80년대 이후 민중이 왕성한 활동을 해 오고 있었던 토대에는 기존민중의 지배체제에 대한 저항이 항상적으로 존재해왔다.

민중이 자신의 이념적 근거의 활동공간을 이곳에 설정

에 비하면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는 일일 것이다.

그레도 관객은 노동자

"노동의 새벽"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대학이나 현장 그리고 소극장 위주의 공연이 주를 이루었던 "노동의 새벽"이 본수적인 문화공간인 하나인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공연된 사실은 우리시대의 중추적인 커다란 사건이다.

공연을 관람한 이의 말을 빌리면 젊은 관객의 대부분이 재학생들이 차지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이전의 이념적이나 기복을 실수도 보이지 않아 항상적으로 제기되었던 전문화의 필요성도 충족시켜주었던 것이다.

하지만 관객의 대부분이 노동자의 단체 관람객이라는 말은 "노동의 새벽" 공연이 시사하는 대중성과 전문성의 가능성도 인연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을 남긴다.

결국 현장에서의 공연과 노동자라는 관람객의 구조를 그대로 지니고 단지 공연장만을 문예회관 대극장이라는 상징적인 공간으로 이전한 것으로는 의미가 제한되고 있는 듯하다.

오히려 생명력의 면에서는 이전의 형태가 더욱 필요하지 않을까?

그것은 새문화화운동에서의 "다시 쓰는 봄"에서 느껴지는 화상과 밀접한 노천극장에서 공연된 부수적인 노동자 문화적 단편의 "바라보기" 공연에서 실은 정열을 비교할 때 더욱 명확해 질 것이다.

김 중 현 (신방·4)



수원 캠퍼스에 새롭게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는 경희대 남시 캠퍼스(K.F.C)는 강대공들의 모임인 남시 동아리이다. 이 동아리는 새내기인 문화인(서남·94)군이 단독으로 3월말부터 대자보등을 통해 뜻을 함께한 회원들 모집, 현재 산업대를 제외한 4개단 22명의 회원이 4월28일 3번째 모임은 가진 신춘대기들의 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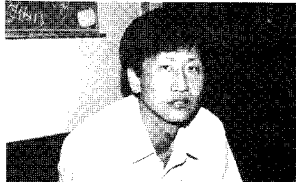
남시 동아리의 주축은 회장 문희진(서남·94)군, 부회장 임형진(부·94)군, 고문 최영환(화·91)군이다. 문희진 회장은 "대학내에 남시 동아리가 없는데 안타깝게 생각한다. K.F.C에서는 학내의 자연에서 비파의 두터운 우정을 쌓으며, 평생을 두고 즐길 수 있는 취미를 만들 것

강대공들의 모임 - K.F.C

다"라고 결성동기를 밝혔다. K.F.C는 매주 목요일의 대자보에서 소모임을 가지며, 한달에 23의 남시여행과 방학중엔 MT 형식의 바다남시와 여름남시, 계획하고 있다. "이제 우리의 모습을 갖추기엔 미흡한 면도 많지만 1년이라는 준비기간을 통해 동아리 형태를 다지겠다. 95년도에는 정식으로 정기회 연합회 가입신청을 해 중앙 동아리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K.F.C는 5월 5-6일 신관로수로 첫번째 남시여행을 떠난다. 남시에 필요한 장비는 몇몇 회원들에 의해 구비되었으며, 차차 보충해 예정이다.

중학교 시절, 53cm짜리 향여를 낚았을 때가 기억난다는 문희진 회장, 물고기가 저를 물렸을때 손끝에 느껴지는 패감을 잊을 수 없다는 김형진 고문, 그들의 건강하고 왕성한 포부만 줄이나 활동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진지현 記者)



인터뷰

척봉돈 씨

(대학원 석사3기·섬유공)

국내 취약분야인 방직공정 연구 스위스 섬유기계사의 Rieter상 수상

스위스의 섬유기계장비 메이커인 Maschinenfabrik Rieter A.G.에서 수여하는 Rieter상을 수상하여 '경희'의 이름을 대외에 널리 알린 최봉돈(대학원 석사3기·섬유공) 씨를 만나 보았다.

이 상은 Maschinenfabrik Rieter A.G.에서 방직기술에 관련된 신진 연구원 및 기술자를 육성, 지원하고 이 분야의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1969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것이다. 세계 각국의 연구소 8~10곳을 선정하면

그 연구소에서 후보를 추천 받아 7~8명의 학생을 선발하여 수여하게 되며, 이 때 상을 수여받게 된다.

▲우수성의 추천으로 지난 92년 학술진흥재단, 자유공제로 연구한 논문을 제출하여 심사 과정을 거쳐 수상이 확정되었습니다.

▲본연구는 무엇보다도, "모듈드프링 기구에서의 슬러퍼를 동적 거동에 대한 연구"와 "분리구동방식을 이용한 모듈드프링 기구의 디지털제어"로 국내에서는 연구가 활발하지 않은 방직공정에 관한 것임이다.

▲사상식은 언제입니까.

이상은 8월경 스위스의 독일을 방문하여 관련업체를 일주일간 견학하게 되며, 이때 상을 수여받게 된다.

▲마지막으로 수상소감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신진연구원의 연구활동을 적극 지원해주고 있는 스위스 섬유기계사 총합장은 김은 감사를 드리며 연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학원주임인 류은영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앞으로의 계획은 대학원 과정을 마치고 해외에서 좀더 학문의 깊이를 더 할 예정이다. (충현주 記者)

개교 45주년 기념 공연

'Flower Festival in Genzano' 중 가장 유망한 Pas de Deux의 한 장면



개교 45주년을 맞이하여 각 예술계 학파와 종문들이 주관하여 기획된 각종 전시회와 공연전이 그 막바지 준비에 한창이다.

그중 지난 4월 29일 국립중앙극장 대극장에서는 '박명공, 김화재, 김발에 작품전'이 무용공연이 열렸다. 한국현대무용

무용과교수 3인의 작품전

경희 현대 무용의 결정체 이뤄

갔다.

1부 혼자는 뜨는 아침
▲단무: 박명공
▲단무: 최영환
▲단무: 김화재
▲단무: 김발에
▲단무: 최영환
▲단무: 김화재
▲단무: 김발에

2부 ① Flower Festival in Genzano (1989)
▲출연: 경희발레단
▲단무: 박명공
▲단무: 최영환
▲단무: 김화재
▲단무: 김발에

상화가 뛰어나다.

여성의 자유와 해방을 신랄한 웃음과 땀의 형태로 표현했다.

이날 공연을 통해 유망한 사단단무의 "저녁"을 반박해서 외적 감각을 더해 주는 데 '여성의 주제적 자아'에 핵심을 두었던 소품과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었다.

한 무리의 도둑들과 Rosa와 그녀의 애인이 Paolo와 연애사건이다. 이 작품은 그 해의 가장 완전한 작품 중의 하나인 Pas de Deux이다.

▲출연: 경희발레단
▲단무: 박명공
▲단무: 최영환
▲단무: 김화재
▲단무: 김발에

오며 이 주제가 발레의 장르상의 특징과 잘 맞는다는 느낌을 준다.

3부 최후의
▲단무: 박명공
▲단무: 최영환
▲단무: 김화재
▲단무: 김발에

상황후를 연기한다. 먼 나라를 향하는 한 척의 배. 그 배는 엄청난 해상에서 내전지인 인도의 항해를 끝내고 자신들의 삶의 회로를 되돌아 오는 여정을 그리는 것이다.

▲단무: 박명공
▲단무: 최영환
▲단무: 김화재
▲단무: 김발에

동아리와 함께 하는 체이스컬트 ②

음악도 마찬가지로, 맘홀린만큼 정직하게 되돌려받는 감동이다.



우리의 맘이 오늘 아름다운 음악이 되었다.

과연 우리가 해낼 수 있을까?
음악을 좋아하고 하지만 우리들 이해관계에 불과한...
이런 고민은 2000년도에 유망한 동아리...
이런 고민은 2000년도에 유망한 동아리...
이런 고민은 2000년도에 유망한 동아리...

